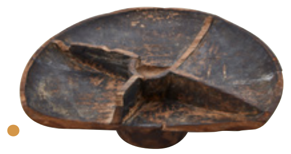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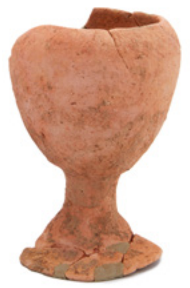
어느 것이 가장 비슷한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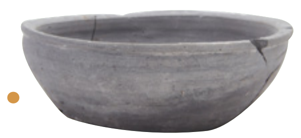
옛날과 오늘날의 부엌도구를 비교하며 쓰임새가 같은 것끼리 연결해보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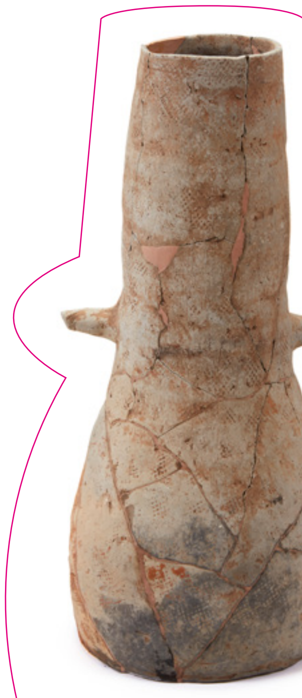
오절판



굽다리잔



보시기



굴뚝

아주 먼 옛날, 부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?

불을 발견하기 전,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익히지 않고 먹었어요. 그러다 우연히 불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은 불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. 또 반죽한 흙을 불에 구워 단단한 그릇과 요리 도구들을 만들었답니다.

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소중한 불을 안전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 옛사람들은 화덕, 부뚜막 등이 갖춰진 부엌을 만들었습니다.

옛 부엌의 모습은 지금과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가족이 함께 머무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부엌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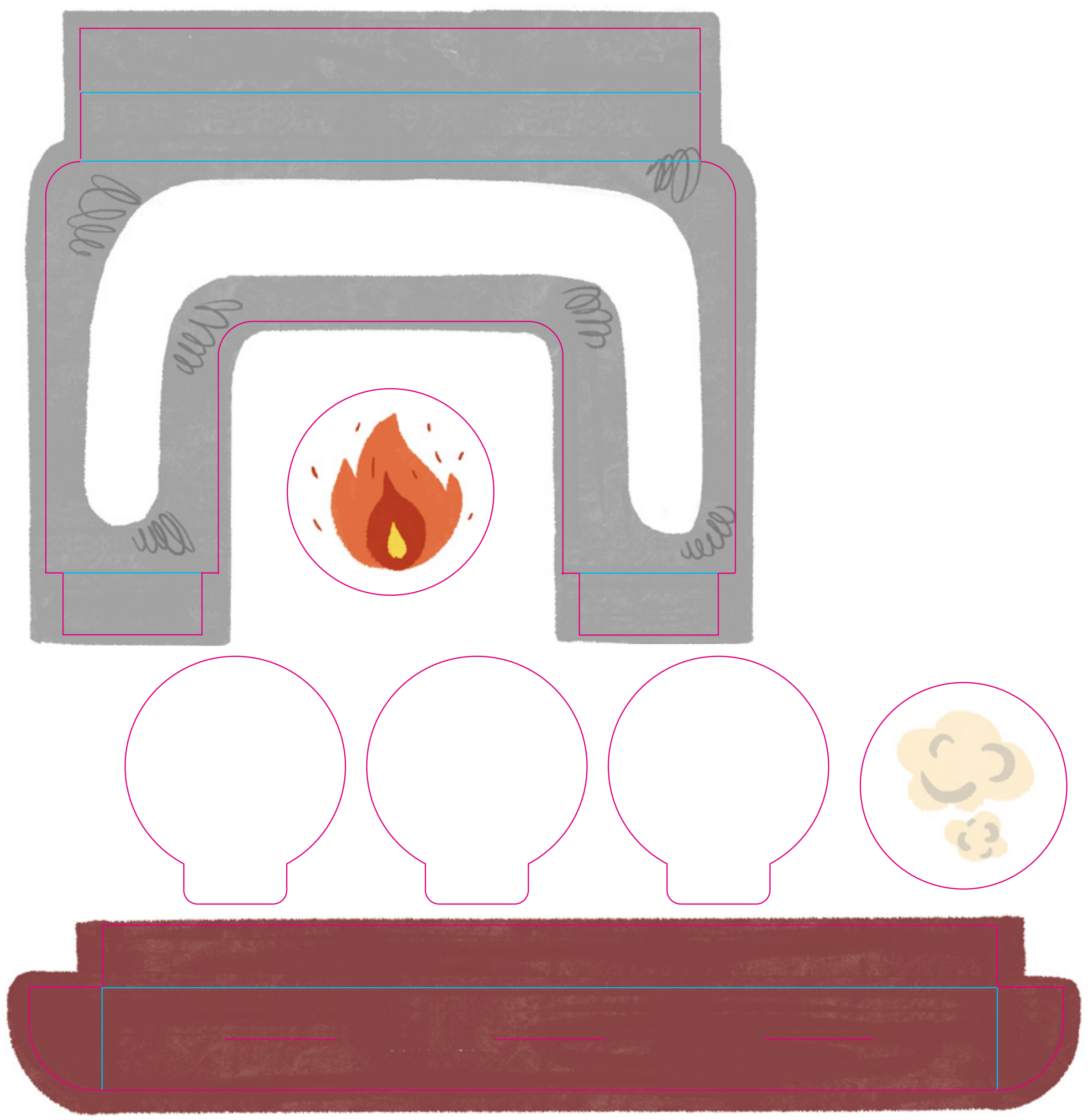
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? 먼 옛날의 부엌과 오늘날의 부엌을 비교하며 전시를 둘러본다면, 더 재미있게 전시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.

특별전 연계 스스로 활동지 **〈따뜻한 마음의 공간, 호남의 옛 부엌〉**
2021.6.15.~8.22.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전시실
기획·개발 교육팀 전선영, 김은지, 이지연, 임채원 **감수** 학예연구실 **찍은 날** 2021.6. **디자인** studio mean

나의 작은 부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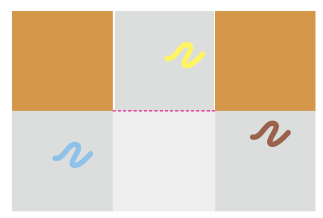
특별전 연계 스스로 활동지

문화체육관광부
국립나주박물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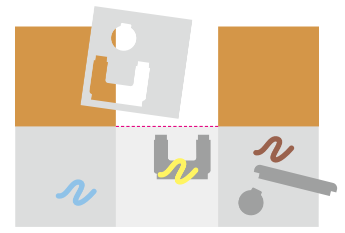


따뜻한 마음의 공간,
호남의 옛 부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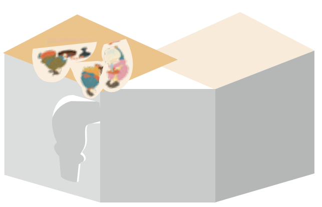
부엌 만들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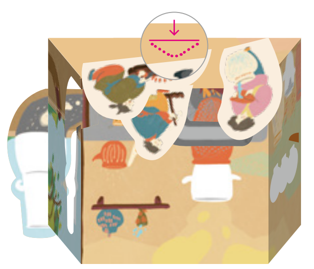
1. 활동지를 펼쳐 앞뒷면의 내용을 채워주세요.



2. 아래 가운데 종이를 뜯고, 물건들로 나만의 부엌을 꾸며보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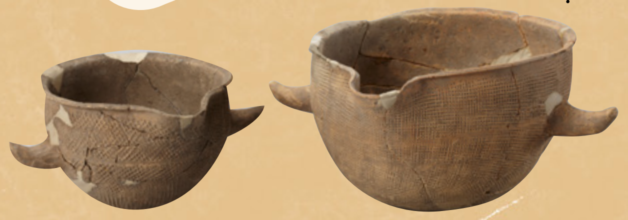
3. 사람과 굴뚝을 세우고, 오른쪽 종이가 왼쪽 종이 위로 오도록 겹쳐 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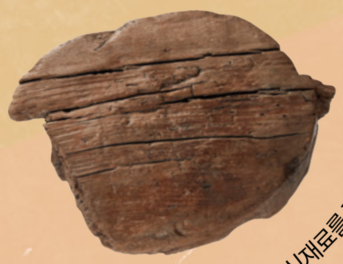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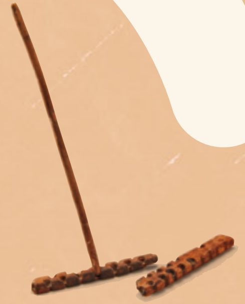
4. 윗면 중앙에 위치한 삼각형 부분을 아랫면 홈에 끼워주면, 완성~!

색연필로 나만의 부엌도구를 꾸며보세요

유물 이름을 적어보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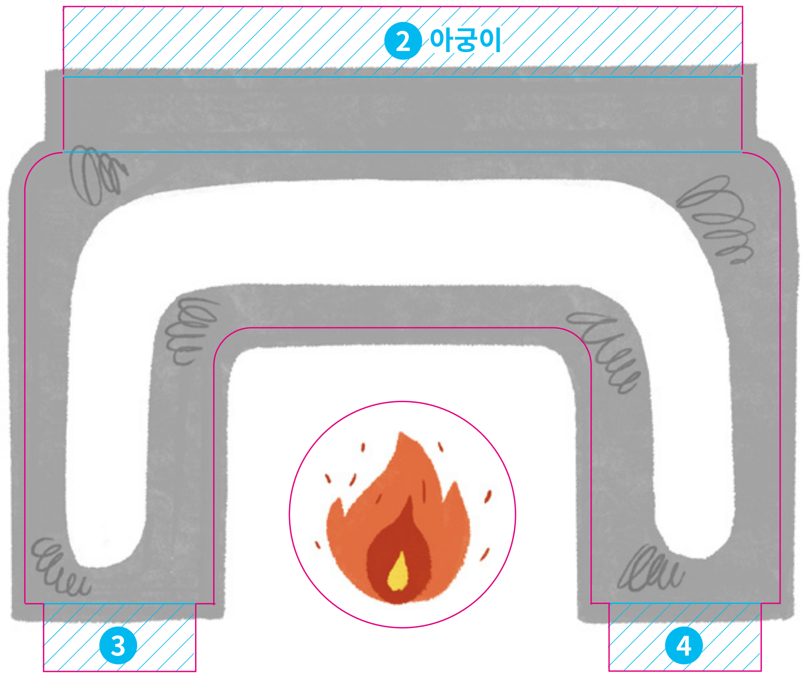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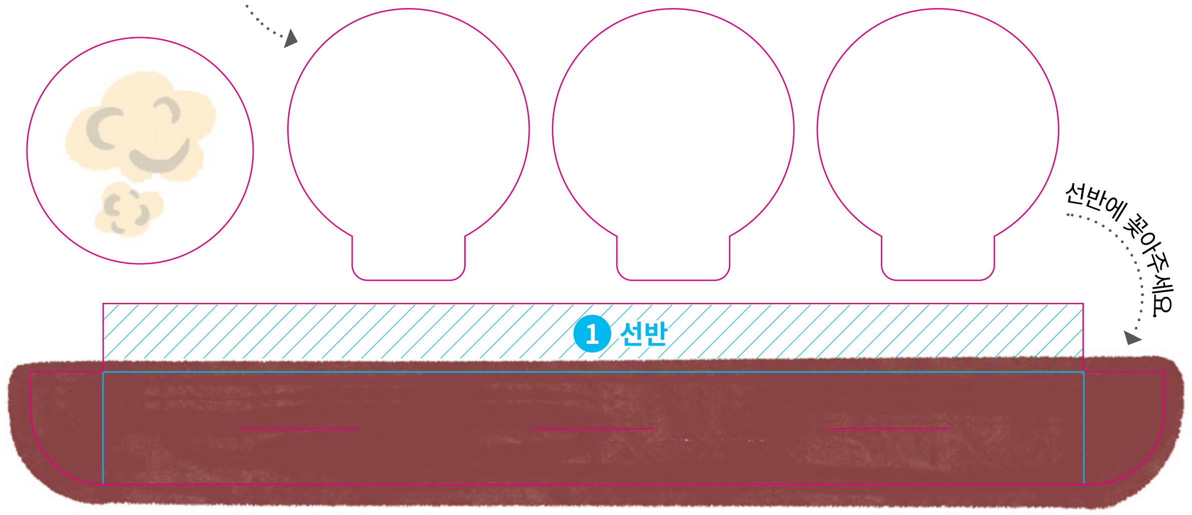


부엌을 만들어보아요

1. 선반과 아궁이를 떼어
   같은 숫자가 적힌 곳에
   풀로 붙여주세요.
2. 연기와 불꽃을 떼어내
   원하는 곳에 붙여주세요.
3. 빈 종이에 부엌에 어울리는
   물건이나 음식을 그린 후
   선반에 꽂아주세요.



← 종이를 뜯어주세요



불을 지펴요!
요리를 해요!
물을 담아요!
4
3